

핵심 증인 줄줄이 불참 ‘맹탕 국조’ 우려

국조 특위 2차 기관보고

‘세월호 7시간 의혹’ 핵심
최재경·박홍렬 불출석
3·4차 증인채택 협상도 불발
박영선 탈모치료제 의혹 제기

지난달 30일 시작한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의 국정조사가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검찰총장, 박홍렬 청와대 경호실장 등 핵심 증인의 불참으로 진상 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이루기 힘들게 됐다.

더욱이 오는 6~7일 양일간 하는 청문회의 핵심 증인까지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국정원 선거 개입 국정조사’ ‘세월호 국정조사’ 등과 같은 ‘맹탕 국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는 5일 청와대·기획재정부·교육부를 상대로 2차 기관보고를 받았다.

김성태 위원장은 기관보고에 앞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번 한 주는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국조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도 최 수석과 박 실장을 비롯해 유국형 청와대 경호본부장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 직전 모인 여야 간사들은 증인 채택 문제로 언성을 높였고, 오는 13~14일 예정된 3~4차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은 결렬됐다.

이번 국조특위는 1차 기관보고 때도 증인으로 채택된 김수남 총장과 김주현



안민석 “이것이 태반 주사”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태반주사제를 들어 보이며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차장검사, 박정식 반부패부장 등 대검 관계자 전원이 수사 중립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하태경·박영선 의원이 회의 시작과 함께 퇴장하면서 2시간 가까이 정회됐다.

결국, 반쪽 국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조특위 위원들의 질의와 지적뿐이었다. 이날 2차 기관보고에선 개회와 함께 위원들이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에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주 미국 샌안토니오 브룩스 미 육군 의무사령부를 방문해 세월호 7시간의 열쇠를 쥔

조모 대위를 인터뷰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에서 파견한 것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 장교가 이를 막고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이영석 경호실 차장이 인적사항을 확인해준진 않았지만 의료장비를 가지고 청와대 경내로 들어와서 부속실 관저로 간 사람이 누군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청와대의 누군가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탈모치료의 목적으로 (전립성비대증 치료제인) 프로스카라는 약을 받아간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모 치료환자에게 전립선 비대증 치료 처

방전을 내는 행위는 현행 의료법 위반”이라며 “약을 정기적으로 받아간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교육부에 대한 기관보고에선 최씨의 외동딸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또 안민석 의원은 “정유라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신주평씨가 공익요원으로 해봉고서 독일에서 정씨와 달콤한 신혼 생활을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조위는 이날 청와대 기관보고에서 의혹 해소가 충분하지 않다면 별도로 현장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동철 “탄핵 기필코 성공”

국민의당 신임 비대위원장

국민의당 김동철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당면한 과제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필코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위에서 박지원 의원의 후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된 직후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소신도 이야기했었지만, 앞으로는 당의 명령과 당론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당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협상파’로 분류됐지만 당의 임시 수장을 맡음에 따라 탄핵 전선의 선봉에 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1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넘겼는데 국회에서 박 대통령의 즉각적 2선 퇴진과 책임총리 임명 등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며 “박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이



를 고리로 새누리당 비박(비 박근혜) 진영 의원들과 탄핵에 돌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와 함께 “내년 1월15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치러내겠다. 전대준비위의 원만한 기능을 위해서도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민주주의·민생·경제·남북관계를 모두 거둬낸 새누리당과 계파 패권주의에 매몰돼 만년 야당에 안주하는 민주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트리기 위해 창당당 정당”이라며 “조심스로 돌아가 창당 정신을 잃지 않고, 온건하고 합리적 개혁세력의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집단지성을 일깨내는데 힘을 보태 당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

“통진당 강제해산 진실 밝혀져야”

옛 당원들 기자회견…“김기춘 현재에 지시…삼권분립 훼손”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당원들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에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등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최근 공개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에는 현재의 정당해산 결정 두달 전인 2014년 10월 김 전 비서실장이 ‘통진당 해산판결-연내 선고’를 지시한 사실이 뚜렷이 적혀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는 “2주 뒤에 박한철 현재소장은 연내 해산심판을 정하겠다고 의원들에게 말했다. 김 전 실

장의 지시대로 기일이 정해지고, 청와대 주문대로 강제해산이 결정된 것”이라며 “청와대가 삼권분립마저 훼손하며 헌법을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실장이 이끄는 대통령 비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 통진당에 대한 정치보복의 컨트롤 타워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해 김미희·김선동·오병음·김재연·이상규 전 의원이 참석했다. 통진당 출신으로 울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윤종오 의원도 동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반기문 “퇴임 후 조국 위한 역할 고민”

알자지라 인터뷰…대권 도전 확답은 피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퇴임 후 계획에 대해 “어떤 것이 나의 조국을 위해 일하는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이날 밤 방송된 아랍권 위성 채널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시민으로서,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유엔을 도울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반 사무총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내년 1월1일이 오면 (귀국 뒤) 각계 지도자, 친구들과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조국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 총장은 대선 출마에 대해 “남은 임기 동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막중한 임무에 집중하겠다”고 답했으나 “한국 국민이 대통령으로 나서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재차 요구받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국 국민이 정부의 통치력 부족에 분노와 실망을 표시하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며 “한국 국민이 성숙함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최순실 자매·장시호 출석 거부…특위 “즉시 동행명령장 발부”

김기춘·우병우도 불투명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와 그의 언니 순덕씨가 7일로 예정된 국회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덕씨의 딸인 장시호씨 역시 출석을 거부했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5일 이들이 특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인 박원오

씨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순실씨의 경우에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과 건강상의 이유로 청문회에 나올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순덕씨와 박씨 역시 건강 문제를 불출석 사유로 제출했다.

여기에 같은 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 국회가 원하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국조 특위의 민주당 윤소하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국조특위를 농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성태 위원장은 “최 씨를 비롯한 그 일가가 7일 청문회 당일 출석을 안하면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일 열리는 1차 청문회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중앙에 앉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

그룹이 각각 이 부회장의 좌우에 앉게 된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재벌 총수들을 위원장실에서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를 기준으로 왼쪽부터 순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 회장, 이회창, 신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순으로 자리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상가 매매

6층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50평 (6층) 천변로 전방 최고 !!!
즉시입주 / 주차완비 / 난방완비
인테리어 최고급 완비(5천만 투자)

★ 차 세 1억6천만
매 가 1억1천만
※(임대 가능 보2천 월 60만) (용 5천)

북구 중흥동 커피숍 임대(1층)
전대정문 2분 후문 2분
시설 완비 / 즉시 입주가능
▶ 보 2천 월 70만

첨단 사무실 임대 (1층~7층)
① 보 1,000만 월 40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7천 월 5만원) (전용 12평, 분양평수 16평)
② 보 500만 월 35만 (투룸형) (주차 1대가능)
(전세 6천 월 5만원) (전용 9평, 분양평수 13평)

첨단 8층 상가빌딩 매매

북구 오룡동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본사건물, 연구실, 기숙사, 물류센터 적합
/ 고속도로 진입 5분)

토지 500평, 건물 904평
층수 : 총 8층
구분 : 1층(상가 - 120평) (2층 ~ 8층 룸 58개)

★ 감정가 55억
매 가 38억
(※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

전남 영광 전원 매매

영광읍 신월리 → 광주에서 40분!!

① 토 151평, 건 43평
② 영광 터미널 5분(농가주택 최적함!!)
▶ 매가 8천500만

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 투자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6층 (45평) 을수리 천변로 전방 좋은
보증금 1,000만, 월세 60만 (용 5천)
▶매가 1억 4천만

□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2층(11평) 운전역 1분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 상무지구 수립 오피스텔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용 1천6백만)
▶매가 8천 500만

□ 상무지구 수립 오피스텔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보증금 500만, 월 42만(용 2천4백만)
▶매가 7천 500만

□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15평) 12층 -전방 좋은, 주변 골포장,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200만,
월 25만(전세 2천5백만 가능)
▶매가 3천 5백만

□ 서울 용산 청라 도시형
지하 (13평) 숙영여대 1분
보증금 600만 월 60만
▶매가 1억6천 (용 5천)

법률 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남구 주월동 (4층 상가주택)
토 71평, 건 180평
1층 ~ 3층 (상가) 4층(주택)
아파트 단지 / 코너자리
재석초 / 봉선주민센터 1분 거리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4억5천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평주역 1분 (코너자리)
총 룸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6억6천



□ 동구 수기동 (2층 상가건물)
토 50평, 건 60평
금남로 4가, 5가 역 2분거리
4차선도로점 / 2층 상가건물
▶감정가 3억 → 최저가 3억



□ 장성군 북하면 (2층 식당)
토 280평 건 253평

식당 최고의 자리 / 백악사 관광지 위치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2억8천



□ 남구 월산동 (2층 상가)
토 33평 건 146평
12층 중 2층
6차선 도로 점 / 넓은 평수 / 광고 최고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4억

010-7384-7800

010-6670-9800